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
		배포일시	2021. 10. 22.(금) 총 2대(본문2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국제항공과	• 과장 김홍락, 사무관 박지윤, 주무관 이금아 • ☎ (044) 201-4215, 4220	
	중앙사고수습본부	해외입국관리팀	• 팀장 주철, 사무관 조민정, 사무관 연지혜 • ☎ (044) 202-1807, 1805	
	중앙방역대책본부	해외출입국관리팀	• 팀장 김주심, 주무관 김민우 • ☎ (043) 719-9207	
	한국공항공사	항공마케팅부	• 부장 이효숙, 과장 조수진 • ☎ (02) 2660-2981, 2984	
보도일시		2021년 10월 2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4.(일) 17:00 이후 보도 가능		

11월부터 지방공항 국제 하늘길 열린다

-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으로, 김해↔사이판·괌 단계적 운항 재개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에 따라, 1년 7개월간 중단되었던 지방공항 국제선을 국내 예방접종완료자*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**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 밝혔다.

* 국내 입국일 기준, 국내에서 화이자·모더나·아스트라제네카(AZ) 백신 2회 접종, 안센 백신 1회 접종을 완료한지 2주 이상 지난 내·외국인(세부내용은 최신 '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' 참고)

** 중요한 사업상·학술·공익적·인도적 목적 등, 긴급·불가피한 입국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발급해주는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·외국인(세부내용은 최신 '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' 참고)

□ (1단계) 이르면 11월말부터 김해공항 국제선이 확대 운영된다.

○ 그동안 국제선을 주1회 운영*하던 김해공항은 현재 운영 중인 세관·출입국심사·검역(이하 "CIQ")의 업무 활용도를 높여, 김해↔사이판 항공편을 주2회, 김해↔괌 항공편을 주1회 추가 운항한다.

* 부산시에서 김해공항 방역체계 구축을 지원하여, '20.12부터 김해↔청도 주1회씩 운영 중


※ 유증상자는 김해공항 내 PCR 검진시설에서 검진을 실시, 확진자는 부산시에서 인근 치료시설로 이송하여 치료·격리 실시

- 김해↔사이판 항공편은 매주 2차례 운항하여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사이판 트래블 버블 여행수요*에 대응토록 지원하고, 겨울철 인기 휴양지 노선인 김해↔괌 항공편도 매주 1회 운항하여 해외여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일부 해소할 예정이다.

* 인천↔사이판 누적 예약객 수 : (8.12.)126명 → (9.14)3,580명 → (10.21.)8,038명

※ 노선별 운항 항공사는 추후 선정 예정

- (2단계)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2월에는 대구·청주·무안공항의 국제항공편 수요가 있을 경우,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CIQ 운영재개 협의 등을 거쳐 공항별로 주3~5회 시범운항을 한 뒤,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- (3단계)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설 연휴에는 김포·제주·양양공항의 국제선 수요와 CIQ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운항 규모와 시점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“이번 김해공항 사이판·괌 노선 증편을 시작으로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역 거주민들의 해외여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”이라면서,
 - “최근 사이판·싱가포르와 체결된 트래블 버블에 이어 이번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재개 등, 지역항공·여행업계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덧붙였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박지윤 사무관(☎ 044-201-4215),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 조민정 사무관(☎ 044-202-1805),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김민우 주무관(☎ 043-719-9207),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조수진 과장(☎ 02-2660-29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